서봉직 교수 지·상·강·좌

치성 치통 (Odontogenic toothache)과 비치성 치통 (Non-odontogenic toothache)

1. 들어가며

치통은 아주 흔하며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우가 허다하다. 치과의사는 구강과 안면의 통증을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이다. 하지만 환자가 지목하는 치아가 통증의 기원이 아니라서 전통적인 치과치료에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이 글에서는 숲을 본 후에 나무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치성 및 비치성 치통에 대한 적확한 진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구성하였다.

2. 치통의 유병률과 의료분쟁

역학연구에 의하면, 구강안면통증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 치통이며, 최근 6개월에 걸쳐서 인구의 약 12%~14%에서 치통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보건의료개방시스템 다빈도 질병통계에 의하면, 2019년도 건강보험 진료환자 상위질병 환자 수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1위, 치아우식증이 4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겪는 치성 치통이 아주 흔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5년간 의료분쟁 통계를 종합·분석한 '2019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발생한 진료과목별 의료분쟁 조정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은 정형외과(2567건)로, 내과(1796건)와 치과(1170건), 신경외과(1106건)가 그 뒤를 이었다(Table 1).

Table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5~2019 진료과목별 조정 신청 현황 TOP 5

진료과목		조정 신청 합계(단위:건)
1	정형외과	2,567건
2	내과	1,796건
3	치과	1,170건
4	신경외과	1,106건
5	외과	737건

특히 치과 의료분쟁 조정 신청건수는 2019년 총 307건으로 진료과목별 신청건수 3위를 기록, 2018년 대비(277건) 10.7% 상승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5년간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Table 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연도별 치과 조정 신청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계
치과 건수	163건	177건	246건	277건	307건	1,170건

이상의 자료를 살펴보면, 치아 및 치주 질환은 아주 흔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치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판단되며, 다양한 치통을 그 기전에 따라 정확히 감별하는 것이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잠재적인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3. 증례

다음 증례를 통하여 환자가 호소하는 치통에 대하여 그 원인을 생각해보자.

60대 환자가 5개월 전 상악 우측 구치부 치통으로 치과에 내원하였다. 이전에 근관치료가 되었던 상악 우측 제1,2소구치 및 제1대구치를 원인치아로 판단하고 근관치료를 재시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완화되지 않아 구강내과에 의뢰되었다. 포괄적 검사결과 안면, 목 등에서 다발성 압통점이 있었고, 하악기능검사에서는 구조적 특이소견은 없었다. 파노라마 검사 결과(Fig 1)에서 특이소견이 없었으나, CBCT 결과(Fig 2)에서는 우측 상악동에서 석회화 물질을 포함하는 점막 비후가 관찰되었다. 치성 기원과 관련이 없는 상악동 질환으로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이비인후과에 의뢰하였다. 상악동에 대한 내시경검사와 조직검사(Fig 3)를 통해 상악동 진균구(Fungal ball)로 진단하고 외과적으로 제거하였다. 수술 후 상악 우측 구치부 치통이 완화되었으나 잔존하였고, 우측 안면 통증도 동반하여서 구강내과에 재내원하였다. 근막통증 및 연관 치통으로 진단하고 약 2개월에 걸친 치료 후에 통증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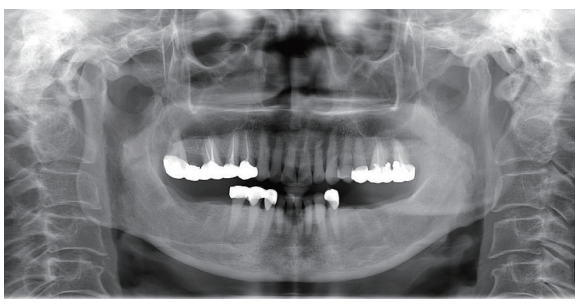


Fig 1. Panoramic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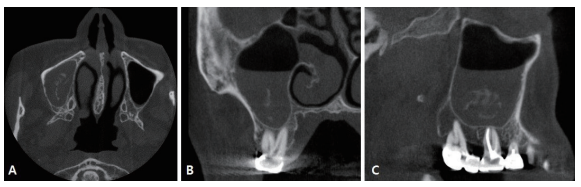


Fig 2. Cone beam computed tomography view shows mucosal thickening including calcified bodies of the right maxillary sinus. (A) Axial view, (B) coronal view, (C) sagittal view.